

키네틱타이포그래피의 ‘주관성의 미학’

Kinetic typography viewed by subjective aesthetics

정혜옥

청강문화산업대학 멀티미디어디자인과

Chung, Hye-Uk

Dept. of Multimedia Design, ChungKang College of Cultural Industries

• Key words: difference, Independent meaning, interdisciplinary study

1. 서 론

1-1. 연구목적

읽기 위한 타이포그래피에서 보여지는 타이포그래피로의 전환은 키네틱타이포그래피의 가장 큰 특징이자 차이점이다. 키네틱타이포그래피는 한 때 디지털기술의 부산물로 이해되면서 새로운 기술에 의하여 흥미있고 현란한 시각적 요소들을 창조하는 주제로 이해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키네틱타이포그래피는 타이포그래피가 지니고 있는 정보전달이라는 본연의 목적 위에 주관적 감정입이라는 미학적인 접근이 함께 시도되면서 객관적, 주관적 정보전달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매체로 발전할 수 있다. 본 논문의 첫 번째 연구목적은 키네틱타이포그래피에서의 타이포그래피와 모션의 관계를 철학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분석하여 키네틱 타이포그래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며, 두 번째로는 키네틱타이포그래피 고유의 창조적인 발전방향과 연구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2. 본 론

2-1. 차연 (Differance)

디자인에서의 모더니즘은 엄격한 규율이 존재하며 때로는 제한된 시각언어의 사용이 요구되는 시각문법에 의한 디자인이 중심이 되었다. 문학을 중심으로 철학에서 역시 과학이나 언어의 문법이 존재하는 구조주의가 대표적인 시대의 흐름으로 기억된다. 이러한 사고는 플라토(Plato) 이후의 서양철학에서 이어지는 말하기(speech)와 글쓰기(writing)에 대한 철저한 이분법적인 사고로 대표될 수 있다. 즉, 글쓰기란 단지 말하는 것을 글로 옮겨 적는 행위이며, 따라서 아무런 창의력이나 생명력이 없는 보조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분법적인 규칙, 글쓰기의 가치저하에 대하여 데리다(Jacques Derrida)는 차연(Differance)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명쾌한 반격을 가한다. 데리다가 사용하고 있는 차연이라는 용어는 차이(difference)와 동일한 발음이지만 동사형 명사를 산출해 내는 ‘ance’로 끝남으로써 ‘차이짐-지연’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산출한다.¹⁾ 만약 한 단어의 의미가 화자가 전달하려는 의미 그대로만이 정확한 의미라고 한다면, 모든 사건은 이미 결정되어 있으며 받아들이는 주체의 상황과 생각은 의미가 없는 것이 된다. 즉, 위에서 설명한 말하기(speech)만이 이성적이며 불변의 진리라는 이성중심주의(logocentrism)에 철저하게 입각한 원칙인 것이다.

그러나 데리다가 설명하고 있는 ‘차연’은 엄격한 위계질서, 대립구조를 기초로 해서는 생각될 수 없는 구조와 움직임이다. 해체주의를 비롯한 후기 구조주의 이후의 작업들은

구조주의 사고에서 형성된 규칙적이고 과학적인 예측보다는 수용자의 조건이나 다양한 외적 요인들에 의하여 각각적인 차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들을 기대한다. 따라서 상호간의 열린 구조가 구성되며 자유로운 교류가 가능해진다. 이러한 주장은 철저히 이분법으로 이해되어 왔던 말하기-글쓰기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생산한다. 즉 글쓰기는 말하기의 파생적인 위치에 있는 수동적인 상태가 아니라 정신적인 사고와 지식에 대한 기록과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자체의 기표를 가진 생명력 있는 형태이다.²⁾

2-2. 키네틱 타이포그래피의 정체성

이처럼 키네틱 타이포그래피에서의 타이포그래피와 모션의 관계는 데리다의 차연(differance)의 개념이 도입된 말하기-글쓰기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나중인, 또는 무엇이 능동적이고 무엇이 수동적인 이분법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글쓰기 자체가 창조적이며 고유의 정신적인 활동이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키네틱 타이포그래피에서의 모션은 자체적으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담겨있는 독립적이고 창조적인 매체로 인지되어야 하며 연구되어야 한다. 텍스트와 모션은 철저히 상호의존적이며 동시에 독립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는 매우 흥미있는 미디어라고 할 수 있다.

정적인 평면에서의 동적인 움직임에 대한 시도, 2D의 평면에서 입체적인 3D를 표현하려는 움직임은 미술사의 역사를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키네틱 타이포그래피는 기술의 혁신적인 발달에 힘입어 정적인 타이포그래피에서 시도된 동적인 모션과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키네틱 타이포그래피의 물리적인 측면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키네틱 타이포그래피의 내적인 부분, 즉 메시지의 전달과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타이포그래피가 가지는 본래의 목적과의 부합이다. 키네틱 타이포그래피 역시 타이포그래피의 원칙과 커뮤니케이션 요소가 그대로 대입되어야 하며, 나아가 모션이라는 동적 매체를 이용하여 기존의 정적인 타이포그래피가 전달하는 메시지의 형태와 방법과는 다른, 보다 창조적이고 역동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요구된다.

2-3. 키네틱 타이포그래피의 연구방법

시간(time)의 개념이 도입됨으로써 시공간적 형태로 발전되어 온 키네틱 타이포그래피는 temporal typography, liquid typography, type in motion 등의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어오며 시각적인 결과물들이 발표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아직 활발하지 않은 상태이다.

liquid typography 라는 제목으로 석사논문을 발표하였던 토마스 물러는 시간, 리듬, 움직임, 속도, 공간, 명암 등과 같

1) 해체비평, 조너던 컬러, 이만식, 현대미술사

2) Jonathan Culler: On Deconstruction, Cornell University, 1982

은 타이포그래피적 변수들이 시간적인 변수들에 의하여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³⁾ 실제로 그는 시간의 변화에 따른 타이포그래피의 새로운 전달방법을 제시하려고 했지만, 그가 제시하는 시간성은 단순히 변화하는 순간들의 연속이며, 많은 부분이 정적인 타이포그래피의 단순한 움직임에 그치고 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반면, 수구루 이시자키(Suguru Ishizaki)는 디자인 구성요소에 대한 각각의 형태적인 측면을 유기적으로 보았으며, 각각의 단어들을 마치 무대위의 배우들과 비유하여 디자인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⁴⁾ 또한 그는 타이포그래피의 커뮤니케이션적인 측면에 대한 연구로 RSVP(Rapid Serial Visual Presentation)이라는 단어들의 제시방법을 제기하였으며, 음성톤, 감정, 리듬, 성격 등과 같은 정적인 타이포그래피와 관계된 특징 이슈들을 제기했다.⁵⁾

2-4. 명확성 (Clarity)

모던 타이포그래피의 중요한 성명 중 하나로 손꼽히는 신 타이포그래피(New Typography)에서 저자 얀 치홀트(Jan Tschichold)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이었다.⁶⁾ 명확하고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하여 내용을 논리적이며 리듬감 있는 형태로 구성함으로써, 불필요한 시선의 움직임을 줄이고 신속하고 명확한 읽기를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그 방법의 하나로 내용의 논리적인 질서를 부여하는 대비(contrast)를 강조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장식을 배제하고 있다. 얀 치홀트의 이 같은 주장은 수구루 이시자키의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제시 방법인 RSVP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에서 '명확성의 범위'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키네틱 타이포그래피에 대한 연구는 한 단어나 한 문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drop'이라는 단어를 표현하고자 할 때, 정적인 타이포그래피에서는 그 의미를 가장 잘 전달 할 수 있는 서체와 크기를 선택하여 표현할 수 있다. 키네틱 타이포그래피에서는 서체와 크기의 선택이외에 drop이라는 단어를 위에서 아래로 속도감 있게 이동시킴으로써, 실제 drop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시공간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문장 역시 동일하다. 'I want to buy blue shoes.'라는 문장을 RSVP의 원칙에 입각하여 한 단어씩 등장시키면 가장 가독성이 높아진다. 만약, '나'라는 일인칭 주어를 강조하고 싶을 때에는 I라는 단어의 크기와 색을 조정하고 화면에서 보여지는 시간을 오래 두거나, 다른 글자와는 다른 움직임을 크게 주는 등의 방법으로써 자연스럽게 강조할 수 있다. 이처럼 현재까지의 연구는 단어나 한 문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시간과 텍스트와의 유기적인 관계에 기초하고 있다.

그렇다면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시나 수필 또는 그 밖의 자체적으로 이야기구조를 지닌 것이라고 할 때, 키네틱 타이포그래피는 어떠한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가? 물론 위에서 제시된 연구방법들은 훌륭한 해결 방법 중 하나이다. 그러나 각 단어나 문장의 의미전달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이나 가장 중요한 컨셉이 무엇인지 길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다. 즉,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에서의 명확성의 범위가 한 단어나 문장이 아닌 전체적인 이야기구조일 때, 우리는 또 다른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필요한 것이다.

3. 주관성의 미학

서두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데리다는 '의미의 자유로운 놀이'를 제시하면서, 저자가 주장하는 원래의 의미와 독자의 창조적인 경험에 의한 의미 사이의 차이, 즉 차연(Differance)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의 비결정성은 계속해서 의미를 발견하며 의미작용의 조건들을 설명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키네틱 타이포그래피로 표현되는 의미는 텍스트에서 읽혀지는 의미이외에도 의미있는 움직임에서 읽혀지는 또 다른 의미가 존재할 수 있다. 키네틱 타이포그래피에서의 모션은 단어나 한 문장의 고정적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기 보다는 바로 키네틱 타이포그래피의 고유의 창조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위한 움직임이다. 읽혀짐으로써 정보전달이 되어지는 텍스트가 움직임이라는 역동성과 결합함으로써 본래의 텍스트가 가지는 의미전달에 도움을 주는 보충(supplement)의 역할이 될 때 키네틱 타이포그래피에서의 타이포그래피와 모션의 관계는 상호의존적이다. 그러나 타이포그래피에 의한 의미가 1차적으로 정확하게 읽혀지지 않더라도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고 느낌으로써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 바로 독립적인 관계로 존재하는 타이포그래피와 모션의 관계성이다.

4. 결론

키네틱 타이포그래피는 단순히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연루되어 자연스럽게 등장한 타이포그래피의 부산물이 아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키네틱 타이포그래피에서의 모션은 자체적으로 생명력 있는 의미있는 매개체이며, 키네틱 타이포그래피에 의한 커뮤니케이션 방법과 그 발전 방향은 단순히 타이포그래피를 비롯한 디자인영역에서만 연구될 수 있는 소극적인 주제가 아니다. 오히려 미학이나 철학, 언어학, 인지 심리학 등의 분야에서 폭넓게 학제간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는 주제이며 자체적으로 많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성찰(meditations)에서 데카르트는 자유를 통해 인간은 신과 같은 존재가 된다고 주장했다.⁷⁾ 이 때 자유는 한계가 없는 그 자체적으로 무한한 것을 말한다. 현재 인류는 디지털 기술이라는 한계를 모르고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매체와 함께 숨쉬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기술은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은 물론 내용까지 무한해 보이는 자유를 허락하고 있다. 키네틱 타이포그래피를 통하여 창조적이고 효과적인 다양한 의미해석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방법의 연구가 이루어질 때 키네틱 타이포그래피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창조하고 이끌어가는 주요 매체로 발전할 것이다.

3) 전수진, type in motion:the historical context of kinetic typography, 디자인문화비평, 안그래픽스

4) Suguru Ishizaki, "On Kinetic Typography", American Center for design journal, Vol 12: No1, 1998

5) <http://www.cmu.edu/cfa/design/kdg/kt>

6) Jan Tschichold, The New Typograph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1995

7) Jonathan Culler, On Deconstruction, Cornell University, 1982

8) Karsten Harries, The meaning of modern art : A philosophical interpretation, Northwestern Univ. Press, 1968